

# 신소재·신약 개발 돕는 AI 기술 '엑사원 디스커버리' 특허 등록

## LG AI연구원

유망 후보물질 수십배 빠르게 발굴  
데이터 분석부터 전과정 보호대상  
후후 '화학 에이전틱 AI' 발전 계획

LG AI연구원이 국가대표 AI 파운  
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전  
부문 1위를 달성하며 기술력과 경쟁력  
을 입증한 가운데 기술 주도권 확보에  
도 앞장서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신소재 및 신약 개  
발을 지원하는 'AI 연구 동료'의 핵심  
기술인 '엑사원 디스커버리'의 특허 등  
록을 최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AI 기반 신소  
재·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논문과 특허,  
분자 구조,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멀  
티모달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보다 수  
십 배 빠른 속도로 유망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  
축할 수 있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특허(등록번호  
제2869378호) 등록으로 신물질 연구개  
발 프로세스 전체를 지적재산으로 보호  
함과 동시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비정형 문서에서  
분자 구조를 추출하고 번호를 부여하

며, 연구자의 질의에 따라 특정 라벨을  
예측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신물질  
예측하는 일련의 방법론과 시스템 전  
과정이 청구항에 명시되어 있어 단순  
알고리즘 개선으로는 우회하기 어려운  
'길목 특허'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수식이나 알고리즘에 집  
중한 다른 AI 특허들과는 달리 LG AI  
연구원의 특허는 데이터 분석부터 실험  
설계와 신물질 예측까지의 전체 과  
정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사가 유사한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연구자가 직  
접 분자 구조나 화학식을 입력하거나  
수동으로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엑사원 디스커버리의 핵심 차별  
기술적인 속도와 편의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이로 인해 연구자가 AI 연구 동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질의하고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LG AI연구원의 특허  
사용 계약이 필수적이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이 특허는  
LG가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을 실  
천함과 동시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독  
점적 권리 장벽을 구축한 대표적 사례"  
라고 설명했다.

LG는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화장품  
소재, 배터리 소재, 신약 개발 등 다양  
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LG는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향후 배  
터리, 반도체, 신약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산업의 판도를 바꿀 신물질을 찾아  
내는 역할을 하는 대표 '화학 에이전틱  
AI'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허 등록은 구 대표가 강조한  
'기존 성공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  
의 실천 사례로 볼 수 있다.

구광모(주)LG 대표는 최근 2026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  
곡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  
다"며, "혁신을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  
이 변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이 그 시  
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경재 LG AI연구원 IP 리더는 "A  
I 모델의 성능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거나 잊힐 수 있지만, 핵심 프로  
세스 특허를 선점하는 것은 기술을 법  
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L  
G는 앞으로도 국가대표 AI를 만드는  
기업, 글로벌 AI 경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 LG-HY BCM 전경.

/LG화학

## LG화학, 中 재세능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中 양극재 기업 韓 자회사 청구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 승소  
가처분 인용뎀 국내시장 파장 예고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  
(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에  
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권침해금지 가  
처분 신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  
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연간 7만톤  
규모의 재세능원 국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 국내 양극재 공급망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  
세능원은 세계 삼원계(NCM)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으로 알려진 중국 롱바  
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재세능원이 청  
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  
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  
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특  
허 유효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G화학은 재세능원은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  
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  
고 판단하고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  
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  
다. 해당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  
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재세능원은 자사 기술이  
독자적이며 LG화학의 특허는 무효라  
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  
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진행 중인 특허권 침  
해금지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  
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세  
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과 판매,  
유통이 즉시 제한된다. 재세능원은 총  
북중주에 연간 7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  
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순수 전기차  
약 7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해당 공장이 기동을 멈출 경우 국내외 양  
극재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wkh@

## 물가 '안정세'... 주요 성수품 가격은 급등

데이터처, 1월 소비자물가 2.0% ↑  
농·축·수산물 상승폭 전년비 축소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이 다소 둔화  
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소비  
자물가도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설 명절을 한 달 앞둔 시  
점인 만큼 주요 성수품의 경우, 가격이  
크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2.0%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8월 통신사 요금인  
하에 힘입어 1.7%까지 둔화한 이래 5  
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9월 2.1%, 10월 2.4%, 11월 2.4%, 12월  
2.3% 등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치인 2.0% 수준까지 내려왔다.

농축수산물 가격의 경우 1년 전보다  
2.6% 올랐으나 지난해 12월(4.1%)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농산물  
(2.9→0.9%)과 축산물(5.1→4.1%), 수  
산물(6.2→5.9%) 상승세가 모두 지난

해 12월에 비해 둔화했다.

하지만 성수품을 중심으로 일부 품  
목 가격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조  
기(21.0%)와 쌀(18.3%), 고등어  
(11.7%), 사과(10.8%), 수입소고기  
(7.2%), 달걀(6.8%) 등의 상승 폭이 컸  
다. 반면 무(-34.5%), 배(-24.5%), 배  
추(-18.1%), 파(-9.9%), 토마토(-6.  
2%) 등은 크게 내렸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전년동월에  
비해 2.8% 올랐다. 빵 +3.3%, 라면 +  
8.2% 등이다. 선풍적인 인기몰이 중인 두  
바이쥬크(두쥬크)는 조사대상 품  
목은 아니지만 주원료인 초콜릿이  
16.6%나 뛰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한전, 美 광서 재생전력 5억달러 PF 성공

해외서 사업성·금융조달 역량 입증  
완료시 2만가구 연간 전력수요 충족

한국전력공사는 미국 광 서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ESS 연계 재생에너  
지 전력사업에 대해 모회사 보증없이  
총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프로  
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F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 변동  
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한국수출입은  
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이 참여한  
대주단을 구성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  
로 성사됐다. 한전이 해외 전력사업에  
서의 사업성 검증 능력과 금융 조달 역  
량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다.

해당 사업은 광 전력청(Guam Pow  
er Authority)이 발주한 프로젝트로,  
광 요나(Yona) 지역에 태양광 132MW  
와 ESS 84MW/325MWh를 구축해 친  
환경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  
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22GWh의 전  
력을 생산해 광 지역 약 2만 가구의 연  
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내 한전 주도 발

전 설비용량은 기존 258MW에서 390  
MW로 확대된다. 이는 광 전체 발전용  
량(708MW)의 약 55%에 해당해, 한전  
의 현지 핵심 전력사업자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부터 설계·조달·시공  
(EPC), 운영·관리(O&M)까지 전 주  
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  
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팀 코리아'  
협업 모델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전  
은 이를 기반으로 북미 지역 내 유사 전  
력사업 수주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PF 체결  
은 모회사 보증없이 글로벌 금융시장  
에서 사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  
을 조달하여 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사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E  
SS 등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전력사업 모델을 해외 시장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금융계약을 계기로 북미  
지역 재생에너지 전력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해  
외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희망과 따뜻함이 가득한 명오년 설 명절을 맞아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홍성군의회는 새해에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정, 책임 있는 의정으로 군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홍성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안내
- 기 간 : 2026. 3. 31.(화) ~ 4. 3.(금)
- 안 전 : 조례안 등 일반안전 처리

홍성군의회